

자아의 위기와 한국 자살발생의 인구학적 구조 변동:

자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노 법 래

(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

본 연구는 지난 약 30여년의 한국사회 자살률의 성별 및 연령별 인구학적 구조의 변동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그와 같은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자아개념(self-concept)과 자아의 위기를 중심으로 네 가지 가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자살률의 인구학적 구조변동을 통해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PAI(percentage age involvement) 지수와 포아송회귀분석의 잔차구조 비교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연령별 자살률 구조는 쌍봉형에서 우상향 구조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변동의 속도에 있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빠른 성별차이가 있음이 관측되었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급격한 수준의 자살의 인구학적 구조변동이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시도한 이론적 접근의 타당성과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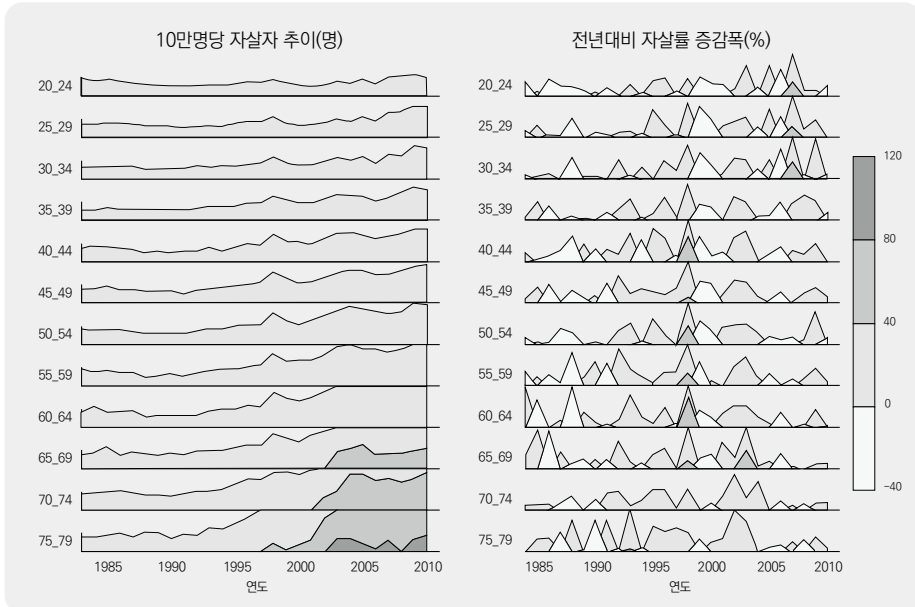
주요용어: 자살, 자아, 인구학적 구조, 경제성장, 경제위기

■ 투고일 2013.7.31 ■ 수정일: 2013.10.1 ■ 게재확정일: 2013.12.5

I. 서론

자살의 발생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보고 사회학의 본격적인 주제로 삼은 뒤르켐은 『자살론』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가 사회문제 가운데서 자살이라는 현상을 택한 이유는 자살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주제이며 ‘시기적절한 주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뒤르켐 외, 2008: 11). 자살이 인간의 행복 혹은 삶의 질의 이면에 있는 부정적 현상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사회현상 가운데서 비교적 측정과 개념화가 용이한 자살이라는 현상에 천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건강성 혹은 삶의 질을 역으로 검토해보는 실증적 차원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 사회에서 자살은 뒤르켐이 언급한 그대로 매우 ‘시기적절’하다는 점에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자살 발생 수준이 비교적 관점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수 십 년간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자살은 명백히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규명되어야 할 중요성과 시의성을 지니고 있다.

그림 1. 10만명당 자살자 수의 연령별 변화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각년도).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국의 자살 발생 수준에 대한 개괄적 상황을 검토해보자.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가 내에서 최상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준에서 비교해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들어 OECD 회원국가의 자살률이 정체 혹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살률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진재현·고혜연, 2013). 이에 정부 및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예방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 자살률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그림 1]은 1983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약 30년간 한국 사회의 자살발생의 연령별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수평그림(horizontal plot)¹⁾이다. 왼쪽은 각 연령별로 10만명당 자살자 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오른쪽은 전년대비 자살률의 변동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두 그림 모두 40단위-왼쪽의 경우는 40명, 오른쪽의 경우는 40%-를 초과할 때마다 중복해서 그리는 식으로 시계열 그래프를 표현하였다.

그래프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한국의 자살 수준은 시계열적으로 볼 때 몇 가지 패턴이 존재한다. 첫째,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1990년을 전후로 해서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둘째, 증감률을 나타내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를 경험한 1990년대 후반에 거의 모든 연령에 걸친 자살률의 반등과 2007년 전후를 기준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자살률의 반등이 나타난다. 연령간 자살률 수준을 비교했을 때는 노년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자살발생률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 이후부터는 노인층의 자살률의 변화가 둔화되는데, 이는 노년층 자살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정황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전반적인 자살 발생 수준에서 관찰되는 이와 같은 특징적인 패턴은 사회적 수준에서 이론적 설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의 자살에 대한 거시적 수준의 연구는 우울과 같은 정신병리적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는 미시적 접근의 연구와 비교할 때 많지 않았다. 사회적 수준에서 현상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도 현상의 입체적인 분석과 이론을 연결 짓는 시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이지 않은 자살의 인구학적 구조 변동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인구학적 구조변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자살 현상에 대한

¹⁾ 수평그림(horizontal plot)은 비교대상 그룹이 많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드러나는 패턴을 시각적으로 검토하는데 유용하다.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꺾은선 그래프가 일정한 값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이를 중첩해서 그리는 것이다(Heer et al., 2009)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다양한 연령군에 대한 동시적인 시계열 추이 비교에 유용하다.

보다 입체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와 같은 변동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자살발생의 인구학적 구조 변동을 통해 한국 사회의 자살 발생의 본질을 조명하고 새로운 분석 시점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표이다. 이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본 연구는 Girard(1993)가 제시한 자아개념(self-concept)에 입각한 자살의 인구학적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한국의 자살 현상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와 같은 간접적인 자살 관련 행동을 결과 변수로 두고 이를 설명하는 개인 수준의 영향 변수를 통해 미시적 차원에서 자살문제를 규명한 연구가 대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비정상적 수준에 가까운 자살발생 수준에 비춰 거시적 수준에서 다룬 실증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몇몇 관련 영역에서 그와 같은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의 자살문제를 다룬 연구를 분석단위를 중심으로 보면 크게 자살률의 국가간 비교연구(김종섭, 2010; 박유진 외, 2009; 신동준, 2004; 최원기, 2004; 유경원·노용환, 2007; 장지연·신동균, 2010 등), 한국내 지역간 자살수준에 대한 비교연구(김기원·김한곤, 2011; 유정균, 2008), 그리고 한국의 자살 발생의 시계열적 추이 연구(김승용, 2004; 박종순 외, 2003; 신동준, 2009; 윤우석, 2011; 은기수, 2005; 이지연·김소연, 2010)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관련 연구들이 양적으로 많지 않고, 방법론이나 이론적 접근 등에서 제각각인 양상을 보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여기서는 이들 연구 가운데서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맥락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자살발생 수준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한 연구를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박종순 외(2003)의 연구는 한국의 자살률 변동을 설명한 초기 실증연구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 사회의 자살발생률에 대한 시계열분석을 통해서 저자들은 GDP 성장률과 실업률이 20세 미만 및 20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자살률을 높은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은기수(2005)의 연구는 경제변수 가운데서도 특히 경제적 불평등간의 관련성을 외환위기 전후라는 시기적

구분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경제지표와 연령별 자살률의 상관분석을 통해 외환위기 전에는 양자간에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불평등과 관련한 지표와 자살률 간에 상관성이 발견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 수준은 20대 이상의 전 연령에 걸쳐 자살률과 상관성이 있으며 경제성장이나 실업률과 같은 경제지표는 시기와 관계없이 상관관계가 거의 없고, 10대와 20대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부분적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김승용(2004)은 박종순 외(2003)의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룬 경제변수에 더해서 가족제도의 변화와 약 20년간의 한국 노인자살률에 대한 추이분석을 통해 이혼율, 경제성장의 둔화, 노인경제활동 참여 감소 등이 노인자살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저자는 실업률의 경우 실업률 자체보다는 실업률의 변동과 같은 불안정성이 노인자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신동준(2009)의 연구는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다뤄졌던 이론적 맥락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Durkheim과 Merton의 이론적 설명틀에 기반하여 한국사회 자살률의 추이를 전반적으로 논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살률 증가의 원인으로서 가족제도의 약화, 고도성장 이후의 박탈감, 경제의 지배 등을 사회구조적 원인으로서 제시하였다. 윤우석(2011)의 연구는 신동준(2009)의 이론적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보다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시계열분석을 활용한 연구이다. 저자는 분석을 통해 약 10여년의 한국사회 자살률이 경제성장, 노령화 수준 등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실업률, 소득격차와 같은 변수들의 영향력은 시계열분석 결과 유의미한 영향력이 포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외환위기 전후의 변수간 상관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업률이나 불평등과 같은 변수는 절대치보다는 속도와 같은 변동수준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보론적 주장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심화시킨 연구로서 송재룡(2008)의 연구는 시계열적 변동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자살에 대한 뒤르켐의 구조적 접근을 한국사회의 특질로서 포착한 '가족주의 습속과 관련지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집합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주의 습속이 한국 사회의 자살 현상의 기저에 놓인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지연과 김소연(2010)의 연구는 한국의 자살 발생을 다룬 연구 가운데서 거의 최초로 코호트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이다. APC(age-period-cohort) 모델을 사

용한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자살 발생 위험이 코호트별로 차이가 있으며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후반에 태어난 연령집단의 자살발생위험이 높고, 베이비붐세대인 1960년대 전후 출생 인구의 경우도 자살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저자들은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이론적 설명으로 이스털린 가설과의 관련성을 논하고 있다. 각각의 상이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세대에 따라 자살 발생의 위험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 이들의 연구는 자살이라는 현상에 힘을 미치고 있는 어떤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검토한 연구들도 핵심 관심 변수의 설정과 조작화, 분석방법의 선택 및 분석의 엄밀성, 분석 대상 시기 등에 차이가 많다. 그러나 대략적 수준에서 기존 연구의 발견을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지어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제구조와 가족제도의 변화와 같은 역사적, 제도적 변동이 한국의 자살률과 상당부분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살발생에 있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전후로 구조적인 변화가 포착된다는 것이다. 셋째, 연령간 자살발생의 시계열적 변동이 일률적이라기보다는 상이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연령별 자살 발생의 구조를 시기별로 비교 검토하고 경제 위기와 같은 외적 충격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접근이 타당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도 거시적 차원의 자살 현상의 규명이라는 차원에서 기존 연구들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본 연구의 주안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본 연구는 실증분석과 이론과의 결합을 강조하고자 한다. Hood-Williams(1996)는 사회적 수준에서 자살 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위험요인(risk factor)’ 규명 연구에 치중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위험요인을 나열하는 ‘리스트 중심’의 ‘임기응변식(ad hoc)’ 연구는 이혼이나 특정약물의 사회적 사용수준과 같은 ‘나쁜 일은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단순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따라서 왜 그와 같은 위험 요인이 선택되어야 하며, 그런 위험 요인이 왜 특정한 자살률의 구조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설명을 많은 경우 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Hood-Williams, 1996: 170). 따라서 실증연구와 이론적 결합의 중요성은 자살 현상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자살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통계적 영향력 검토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기보다는, 자살의 발생 구조와 그 변동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이론적

틀로서 설명하는 또 하나의 시도를 하고자 한다. 19세기 초반 뒤르켐을 비롯한 일단의 이론가들이 사회현상으로서의 자살 문제에 착목했을 때 자살률의 현황과 관련한 ‘사실 그 자체와 이를 설명하는 이론적 시도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을 본 연구도 견지하고 있다.

자살을 유발하는 사회적 ‘예측 요안의 발견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포착된 현상에 대한 설명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이와 같은 관점은 자연스럽게 본 연구의 두 번째 관점인 매커니즘에 입각한 설명과 이어진다. 즉, 한국 사회의 자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힘에 초점을 두는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살이란 결국 개인의 선택적 행동이라는 점에도 주목함으로써 거시적 환경과 개인의 선택이라는 양자를 잇는 매커니즘에 기초한 설명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사회현상에 대한 매커니즘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Pawson & Tilley(1997)는 사회현상의 규명에서 매커니즘이란 개인이 집단에 소속된 상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적 선택들과 역할들에 관한 설명체계라고 논하였다. 그의 용어를 빌리자면 본 연구는 사회 구조의 변동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자살이라는 선택 혹은 자살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 사회의 자살 현상의 실증적인 검토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성별 및 연령별 자살의 인구학적 구조변동을 시계열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자살 발생의 인구학적 구조와 그 변동을 체계적으로 살피는 것은 현상의 입체적 이해라는 기술적 차원의 이점도 있으며, 구조와 개인의 선택을 잇는 매커니즘에 대한 규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자살발생 수준이라고 해도 청장년층의 자살이 주요한 사회와 노년층의 자살이 주요한 사회를 놓고 그 구조적 매커니즘을 같이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자살에 대한 공동체적 개입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할 때 그와 같은 상이한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구조와 개인을 연결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규명을 시도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범위적인 이론적 설명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사회심리학적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설명틀 가운데서도 특히 서구 사회의 자살의 인구학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다룬 바 있는 Girard(1993)가 제시한 ‘위기의 자아(threatened self)’의 논의를 차용하고자 한다. 그는 자살률의 인구학적 구조에 관심을 기울이며 뒤르켐의 이론적 설명이 이와 같은 구조를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논했다. 그는 자살의 수행이라고 하는 개인적 차원의 선택과 사회적 맥락이라는

거시적 수준을 잇는 설명적 고리로서 ‘자아개념(self-concept)’을 도입하였는데, 자살에 대한 그의 이론적 접근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아개념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포괄하는 일련의 내적 이미지를 의미한다. 자살은 이와 같은 자기상이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선택하게 되는 최후의 선택이다. 자살을 통해 개인은 자아개념의 심각한 불일치를 회피함과 아울러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중요한 타자에게 전달하는 상징적 시도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은 각기 다른 삶의 경험 속에서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산업화의 심화에 따라 남성은 직업적 성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상황조건적(contingent) 혹은 성취중심적(achieve-based) 자아상을 확립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아상은 경쟁에서의 성공, 시기에 맞는 승진과 임금의 상승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지지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지 요소들을 시기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남성은 높은 수준의 자아 위기를 경험하고, 이는 자살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기 정체성을 지지하는 요소들의 상호의존성과 중심성(centrality)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지지를 구할 수 있는 대안들이 사회적 제약에 의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는 자아의 취약성이 더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화가 일정한 수준에 오른 사회에서 남성의 자살률은 중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Girard, 1993: 554-555).

한편 여성의 경우는 전통적인 역할이 상당부분 가족의 안녕, 특히 자녀 양육과 관련된 가족지킴이(kinkeeper)로서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처럼 자아의 취약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수행중심적 지지 요소보다는 자녀와 가족간의 지지, 유대와 같은 비수행중심적 지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살에 이르는 위험이 낮으며, 자살에 이르더라도 자녀 양육과 관련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위기를 경험하는 중년 전후를 정점으로 하는 자살률 구조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상도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면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Girard, 1993: 555-557).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는 자살률의 연령 구조로서 [그림 2]와 같이 우하향(downward sloping), 볼록(convex), 쌍봉형(bimodal), 우상향(upward sloping)의 네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경제발전, 산업화 수준에 따른 연령별 자살률 구조에 대해서 다섯 가지 가설²⁾을 제시하고 이를 서구 사회의 자살률의 연령별 구조 분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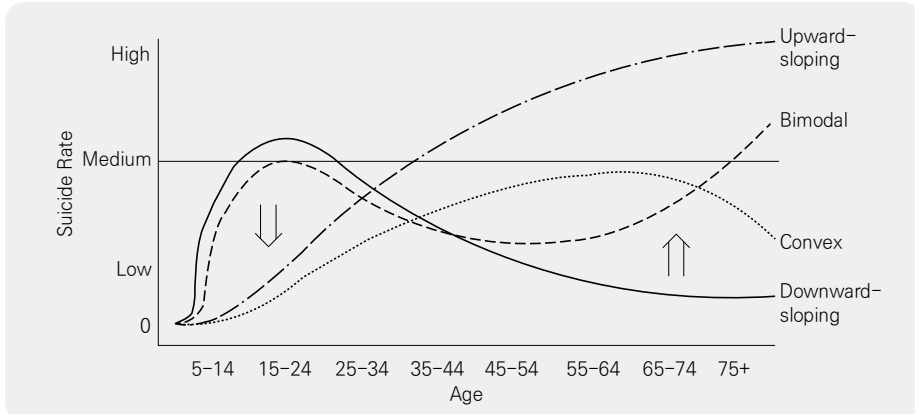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Girard, 1993: 558-559).

그러나 Girard가 제시한 자살률의 인구학적 구조 유형화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수정의 여지가 있다. 우선 그의 논의에서 경제발전이 따른 유형변동이 있을 때, 자살률이 상승하는 지점에서의 논의는 설명이 가능하나 떨어지는 연령 구간의 논의는 다소 모호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제발전 도상기에서 경제발전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장년층 이상 연령대의 자살률 증가는 그의 자아 위기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될지라도 청년층의 자살 감소에 대한 설명은 다소 부족하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지어 한국 사회와 같이 전 연령에 걸쳐 자살률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에서 자살 발생의 연령별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서 Girard가 제시한 바대로 단위인구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을 사용하여 연령구간별로 자살률이 '낮다' 혹은 '높다'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현상을 명확하게 포착하기 힘든 점이 있다. 결국 연령별로 자살률이 '낮다', '높다'라는 것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각 시기별 전체 자살률과의 상대적 개념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시점의 연령별 자살률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PAI(percentage age involvement)지수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하기로 하겠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자살률의 연령구조를 다룰 때는 각 시기별 상대적 규모를 중심으로 논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사회변동과 자살률의 인구학적 구조변동을 자아의 위기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 Girard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도출한 연구가설은 네 가지이다. 앞서 제시된 세 가지 가설은 그의 논의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된 것이며, 마지막 한 가지 가설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로 도출한 것이다.

2) 그가 논문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볼록구조(convex)나 우상향(upward-sloping)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는 우하향(downward-sloping)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며, 중년 이후 보다는 결혼연령(15~34세)의 자살률이 높을 것이다. 셋째, 경제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연령별 자살률의 구조는 거의 비슷하거나, 결혼연령기에는 여성의 자살률이 더 높은 양상을 보일 것이다. 넷째, 경제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의 경우 쌍봉구조(bimodal)가 현저할 것이다. 다섯째, 경제발전이 따라 하향구조에서 쌍봉구조로, 그리고 쌍봉구조에서 상향구조로 이행하며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변화가 먼저 발생할 것이다.

그림 2. Girard의 자살률 연령구조의 네 유형



자료: Girard(1993). p.558.

먼저 Girard(1993)가 제시한 연구 가설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시기인 1980년대부터 2010년에 이르는 한국 사회에 적용가능한 가설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가설 1: 80년대의 경제발전 도상기에 한국 자살발생의 연령구조는 쌍봉형이었을 것이다.

가설 2: 쌍봉형 자살발생의 연령구조는 경제성장에 따라 점차 우상향, 혹은 볼록형으로 변화했을 것이다.

가설 3: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쌍봉형구조에서 우상향, 혹은 볼록형 구조로 변화되는데 시간차가 있을 것이다.

먼저 <가설 1>은 경제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의 경우 자살률의 연령구조가 쌍봉구조를 띠 것이라는 Girard의 가설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었다. 한국의 1980년대는 1970년대까지 진행된 경공업중심 산업구조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동과 정착에 아우른 발전국가 전략의 제도적 준비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던 시기였다. 산업화의 성숙에 따라 기존 가치체계의 변화에 아울러 사회 전반에 높은 수준의

경쟁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Girard의 논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의 자살이 현저한 특성을 보이는 경제적 저발달 단계의 특징이 유지되는 가운데 발전 도상기로 이행함에 따라, 성취중심적 사회에서 자아의 위기를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장년층 이후의 연령을 중심으로 서서히 자살발생 수준이 증가하는 과도기적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속되는 산업화의 심화와 경제성장은 사회 전반에 걸쳐 성취중심적 자아 지지요소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때,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아 지지요소간 상호의존성과 중심성의 증가는 직업적 성취와 관련된 부정적 충격에 대한 불안정성을 높게 된다. 따라서 경제 발전 수준이 어느 정도 진행된 사회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살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패턴이 명확해진다. 물론 노후보장의 특성이나 은퇴 후 대안적인 자아 지지요소의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사회이나에 따라 노후의 자살률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산업화의 심화에 따른 경제발전에 따라 자살 발생의 연령구조가 점차적으로 우상향 혹은 볼록형이 될 것이라는 <가설 2>가 도출된다. 한국 사회의 경우 사회보장의 상대적 미발달과 가족 기능의 빠른 약화라는 제도적 특성상 노후의 자살 수준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우상향 구조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산업화는 주로 남성생계부양자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을 기반으로 발달했다. 더욱이 한국은 산업화 이전부터 강한 가부장적 유교문화라는 특질을 갖고 있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들어서이며, 외환위기 이후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상당부분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부양자로서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업화의 상당한 진전에도 여성이 생애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자아의 위협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가족 돌봄과 같은 '전통적' 영역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며, 점차적으로 남성과 유사한 구조로의 그 변화가 발생하는 시차가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설 3>은 이와 같은 논리하에서 도출되었다.

Girard의 연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도출된 세 개의 가설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충격의 영향을 반영하는 새로운 가설을 추가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일부 제시된 것처럼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본 연구에서 자살 구조 변동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충격으로 검토할 것이다. 개인이 당면한 생애사건이 예측불가능성이 높거나 대체할 대안이 없을 경우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정체성 위기는 커질 수 있다(Girard, 1993: 554). 일부 국내 연구(김승용, 2004)에서도 사회적 변화의 속도가 자살 발생과 중요한 상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외환위기는 고도성장의 경험에 젖어 있던 한국 사회에 전에 없던 엄청난 부정적 충격과 함께 사회 전반의 급격한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했다.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규제금융 체제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기적'으로 칭송받던 고도성장 시기와의 작별, 사회전반에 걸친 경쟁의 심화는 개개인이 당면한 정체성의 위기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급격하게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수많은 개인으로 하여금 송재룡(2008: 141)이 언급한 자살 충동을 야기하는 '자기 연속성(self-continuity)' 확보의 실패라는 상황에 빠지게 하였을 것이다. 고도 성장기의 임금 압축과 종신고용 관행이 강했던 노동시장과 남성생계 부양자 모델 중심의 가족제도 하에서 자기 연속성을 유지했던 다수의 한국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 90년대 외환위기의 충격은 그와 같은 연속성과 작별을 고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신동준, 2009; 윤우석, 2011; 은기수, 2005)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외환위기를 전후로 자살률 추이의 질적인 변화가 관찰되고 이와 같은 변화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의 성격이 많이 변화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충격이 한국사회에 전반적인 충격을 가했는지라도 충격의 영향은 계층이나 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에서의 지위에 따라 달랐을 수 있다. 남준우(2007)의 연구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외환위기의 충격은 특히 여성가구주, 저학력자, 자영업자, 소규모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패자'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충격 흡수와 관련한 이와 같은 불균등 구조는 자아의 위기 경험의 차이를 갈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자살발생에 있어 인구학적 구조변동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 4>를 도출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설 4: 자살발생의 인구학적 구조는 외환위기를 전후해 빠른 변동을 보였을 것이다.

III. 분석방법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가설을 검토하기 위해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가설 1>에서 <가설 3>까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자살발생의 연령구조 변동을 성별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설 4>와 관련 있는 것으로 시기별로 자살발생의 인구학적 구조 변동의 폭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망데이터이며,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1983년부터 2011년까지로서 약 30년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각 시기를 분석 초기시기와 최종시기의 약간의 오차를 제외하고 5년 단위로 묶어 여섯 개 시기로 구분하기로 한다. 이때, 자살발생 수준은 해당 시기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아울러 연령집단의 경우는 통상적인 방법대로 5세 단위로 묶기로 한다. 분석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기별 자살발생의 연령구조 변화와 관련 있는 첫 번째 분석과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Steffensmeier et al.(1989)이 활용한 PAI지수를 활용한다. 그들의 연구에서 PAI지수는 범죄유형별 발생수준의 연령구조의 비교를 위해 사용되었는데, 이후 Cutright & Fernquist(2001)의 연구에서처럼 자살 발생 수준의 연령구조의 비교분석에도 활용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살자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서 타당하게 시기별 연령구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자살발생수준을 각 시기별 상대적 수준으로 측정하게 해주는 PAI와 같은 지수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PAI의 공식은 <식 1>과 같다. 식에서 i 는 각 시기를 의미하며, j 는 연령집단을 의미한다. r_{ij} 은 해당집단의 10만명당 자살률을 의미한다. 식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PAI는 각 시기별로 연령별 단위 인구 수 일반적으로 10만명-대비 자살발생 수준의 퍼센트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살자 수가 변동하거나 연령별 인구구조가 달라진 경우에도 자살발생의 인구학적 구조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teffensmeier et al., 1989: 809).

$$\text{<식 1> } PAI_{ij} = \frac{r_{ij}}{\sum r_{ij}} \times 100$$

본 연구에서는 PAI에 따른 시기별 자살발생의 성별, 연령별 구조를 그래프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서 시기별로 자살의 인구학적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위에서 제시한 가설이 지지되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그와 같은 시각적 관찰이 얼마나 유의미한 수준에서 지지될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선형 포아송 회귀분석 모델(log-linear poisson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잔차(residual)구조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잔차구조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각 집단간 사건 발생 빈도의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비교 할 수 있게 된다(藤井良宣, 2010). 본 연구에서는 성별, 시기, 연령집단을 설명변수로 자살발생 수에 대한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구해진 기댓값과 관측값의 차이를 피어슨 잔차(Pearson's Residual)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피어슨 잔차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Frees, 2010: 344-347).

$$\langle \text{식 2} \rangle \text{ Pearson residual} = \frac{\text{observed} - \text{expected}}{\sqrt{\text{expe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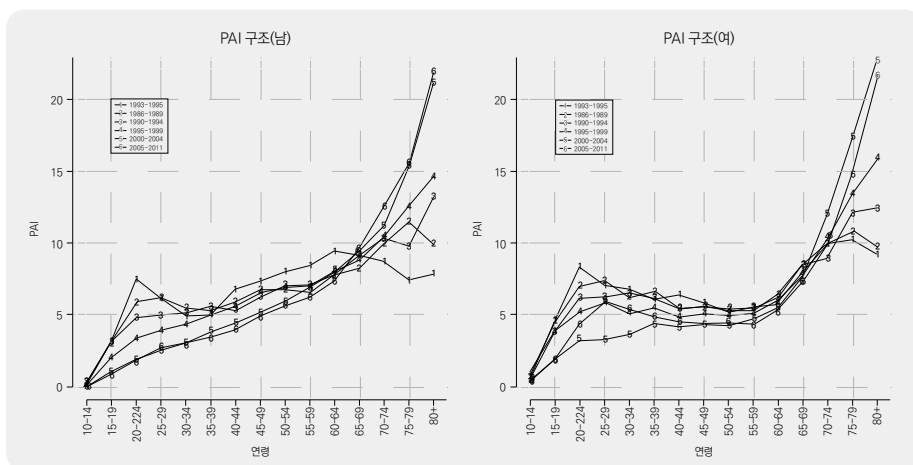
이어서 분석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시기간 연령구조의 변동폭을 비교하기 위해서 Cutright & Fernquist(2001)가 제시한 PAI지수의 합산 방법을 활용하기로 한다. 즉, 각 시기별로 기준이 되는 시기와의 PAI값의 연령별 차이를 계산하고 이 차이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각 연령대의 자살수준의 PAI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합산함으로써 비교대상이 되는 두 시기의 분포가 얼마나 다른지 하나의 지표를 통해서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시작시기인 1980년대 초반의 자살 발생 수준의 연령구조를 기준으로해서 각 시기와의 차이를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수준으로 구조변동이 발생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V. 분석결과

1. 자살발생의 인구학적 구조 변동

[그림 3]은 연령집단별 자살발생에 대한 여섯 개 시기의 평균 PAI지수를 활용해서 시기에 따른 자살 발생의 연령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왼쪽그림은 남성의 자살 추이를, 오른쪽 그림은 여성의 자살 추이를 각각 나타낸다. 연령별 자살 발생 구조가 시기별로 1부터 6까지 꺾은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프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자살발생의 인구학적 구조가 시기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서 성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자살의 인구학적 구조 변동의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은 한국 사회 자살 현상의 특징이다. 그와 같은 속도는 한국 사회 특유의 압축적 산업화와 같은 빠른 사회적 변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빠른 변동은 고도 경제 성장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한국 사회의 개개인에게 자기 연속성의 상실이나 자아 지지요소의 확보를 제약하는 환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속도가 구조 변동과 별개로 한국 사회의 자살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3. 자살발생의 성별 연령구조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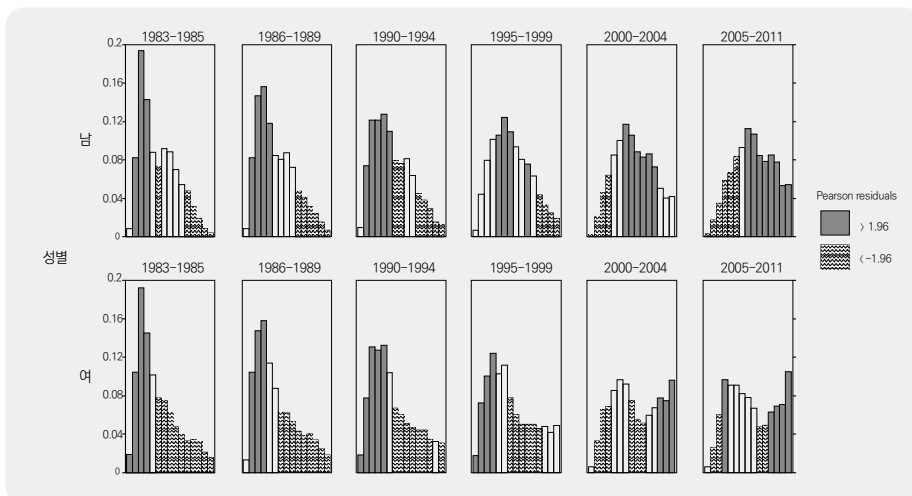


먼저 [그림 3]의 좌측에 위치한 남성의 경우 분석의 초기 시점인 1980년대 초반의 경우 20대에서 자살 발생의 정점을 보이고 다시 감소하다가 40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60대초에 다시 정점에 이르는 전형적인 쌍봉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Girard가 말한 경제발전 도상기의 자살발생구조와 유사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쌍봉형 구조는 90년대를 넘어가면서 점점 우상향 구조로 변동하다가, 2000년 전후를 기점으로 노인층의 자살 발생이 현저한 급격한 우상향 구조로 빠르게 변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여성의 경우 1980년대 초반의 경우 남성의 경우와 유사하게 쌍봉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20대와 70대에서 높은 수준의 자살 발생이 관찰된다. 다만 여성의 경우 남성과 유사한 쌍봉형이지만 40~50대의 장년층의 자살 발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도 초기의 쌍봉형 구조가 조금씩 일관되게 변화하는 양상이 관찰되지만 변화의 시간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를 넘어오면서 우상향 구조가 뚜렷하게 고착화된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분석의 말미 시점인 2010년 시점까지도 쌍봉형 구조를 느슨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년층의 자살률이 2000년 전후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치솟는 양상은 남성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4]는 [그림 3]에서 관찰한 변화 패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토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포아송 회귀분석에 의해 도출된 잔차구조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각 그래프는 성별 및 각 시기별 연령대 자살발생 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의 막대그래프는 앞에서와 같이 5세 단위로 구분한 연령대의 자살발생수를 나타낸다. 다만 여기서는 자살자의 절대수를 막대그래프로 표시했기 때문에 앞서 PAI 구조에 대한 [그림 3]의 경우처럼 연령집단별로 표준화된 그래프와는 차이가 있다. 막대그래프 가운데서 색깔이 칠해진 연령구간은 피어슨 잔차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구간을 의미한다. 짙게 칠해진 연령대는 피어슨 잔차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구간, 사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반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측치가 작은 구간을 의미한다.

그림 4. 성별 및 시기별 자살발생의 잔차 구조 비교



[그림 4]에서 드러난 바는 앞서 [그림 3]에서 살펴본 바를 명확하게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피어슨 잔차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큰 구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남자의 경우 분석의 초기 시점에는 청년집단에서 예측치보다 관측치가 많다가 점점 그 패턴이 장년층 및 노년층으로 이행해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연령과 성별, 그리고 시기 전체를 아울러보았을 때, 남성의 자살에 있어 장년 및 노년층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다소 차이가 있는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살자의 고령화가 남성과 달리 일관되기 보다는 30~40대를 전후로 정점을 보이면서 20대와 30대의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PAI구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또한 남성과 마찬가지로 2000년 이후부터 노령층의 자살 증가가 뚜렷해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기에 따른 자살발생의 인구학적 구조 변동을 본 연구의 가설과 관련지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80년대 한국의 자살발생의 인구학적 구조는 남녀 모두 쌍봉형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경제발전 도상 단계가 지닌 과도기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의 구성과 같은 전통적인 역할의 수행과 관련한 자아 위기 경험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성취중심적 사회에서 자아의 위기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장년층을 중심으로 자살 발생 수준이 증가하는 사회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특히 유사한 쌍봉형일지라도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기반한 산업화 과정의 특성상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장년층 이후의 자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포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설 2>에서 예상한 우상향 혹은 볼록형으로의 구조 변동 또한 지지되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노령기에 이르기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발생 수준도 꾸준히 증가하는 우상향 구조가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면서 성취중심적 문화의 확대 가운데서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로 인한 정체성의 위기를 일차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년층 이후의 세대의 자살률이 상승하는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아 지지요소의 상호의존성과 중심성의 증가는 직업 활동을 중심으로 한 성취중심적 지지요소의 상실에 직면한 퇴직 후 노령층에게 있어 생애를 거쳐 형성된 자아에 대한 중요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충격에 대한 일종의 완충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 노후보장과 관련한 제도의 미발달은 한국 사회에서 그와 같은 위협의 크기를 더욱 증폭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Kwon & Yi(2009)의 지적과 같이 한국사회가 보여준 사회정책의 발달사적 특성은 경제발전의 직접적 필요와 관련 있는 영역 중심의 발달이며, 상대적으로 경제발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노후보장과 관련한 정책 요구는 상대적으로 고려가 적었다.

셋째, <가설 3>의 성별 구조변동의 속도 차이 또한 지지되었다. 남성이 쌍봉형 구조에서 우상향 구조로 완연한 변동을 경험하는 동안, 여성의 경우 역시 전반적으로는 우상향 구조와 유사해지는 변동을 경험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다소 느슨한 쌍봉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속도의 차이는 부양책임자로서 남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주요했던 시기를 걸쳐 점차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동과 관련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시간차와 관련해 20~30대의 여성들이 여성 자살 발생 수준이 같은 연령의 남성에 비해 상당한 비중을 최근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현재의 청년층 여성들의 경우 전통적으로 요구받는 성공적인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관련한 자아의 위기 경험과 아울러 고용시장의 지위 획득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통해 자살 발생의 인구학적 구조 변동에 대해서 제시했던 가설이 상당부분 한국 사회의 자살의 인구학적 구조변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경우 남녀 공히 노인층의 자살발생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블록형 구조보다 우상향 구조로의 변화가 현저하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한편, 노인층의 자살발생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점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외환위기의 충격을 경험한 2000년 전후 시점에서의 분명한 변화이다. <가설 4>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구조 변동 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이어서 검토하기로 한다.

2. 자살발생의 인구학적 구조 변동폭

표 1. 시기별 남성 자살발생의 구조 변동폭

| 연령 | 시 기 | | | | | |
|-------|-----------|-----------|-----------|-----------|-----------|-----------|
| | 1983-1985 | 1986-1989 | 1990-1994 | 1995-1999 | 2000-2004 | 2005-2011 |
| 10-14 | 0.00 | 0.05 | 0.13 | 0.03 | -0.19 | -0.16 |
| 15-19 | 0.00 | -0.08 | 0.00 | -1.16 | -2.13 | -2.21 |
| 20-24 | 0.00 | -1.57 | -2.72 | -4.09 | -5.61 | -5.62 |
| 25-29 | 0.00 | 0.08 | -1.15 | -2.19 | -3.59 | -3.39 |
| 30-34 | 0.00 | 0.61 | 0.27 | -0.56 | -1.84 | -1.88 |
| 35-39 | 0.00 | 0.27 | 0.58 | 0.04 | -1.18 | -1.55 |
| 40-44 | 0.00 | -0.83 | -1.40 | -1.15 | -2.31 | -2.79 |
| 45-49 | 0.00 | -0.46 | -1.02 | -0.65 | -2.14 | -2.37 |
| 50-54 | 0.00 | -1.15 | -0.91 | -1.01 | -1.97 | -2.28 |
| 55-59 | 0.00 | -1.82 | -1.36 | -1.36 | -1.60 | -2.23 |
| 60-64 | 0.00 | -1.68 | -1.77 | -1.43 | -1.46 | -2.07 |
| 65-69 | 0.00 | -0.82 | 0.00 | -0.24 | 0.23 | 0.43 |
| 70-74 | 0.00 | 1.25 | 1.61 | 1.70 | 2.46 | 3.85 |
| 75-79 | 0.00 | 4.03 | 2.39 | 5.24 | 8.03 | 8.25 |
| 80+ | 0.00 | 2.11 | 5.34 | 6.82 | 13.29 | 14.02 |
| D | 0.00 | 16.80 | 20.66 | 27.66 | 48.04 | 53.11 |

<표 1>은 시기별 남성 자살발생의 구조변동을 PAI값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석의 초기 시점인 198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각 시기의 PAI변동폭을 계산하였다. 각 열의 마지막행은 PAI값 차이의 절대값의 합(D)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값이 클수록 비교되는 두 시기의 연령구조가 다르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절대값의 합(D)의 시기별 차이를 통해서 남성의 자살 발생의 연령 구조의 변동이 1980년대 초반에서 1980년대 후반으로 넘어갈 때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으로 넘어갈 때 두 차례의 큰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외환위기를 경험한 시점인 후자의 경우 전 시기에 걸쳐 가장 큰 이전 시기 대비 변화폭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변동은 연령별 PAI값의 차이를 비교 검토해 볼 때, 노령층의 자살률 증가와 크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70세 이상 인구집단의 경우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전체 자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 시기별 여성 자살발생의 구조 변동폭

| 연령 | 시 기 | | | | | |
|-------|-----------|-----------|-----------|-----------|-----------|-----------|
| | 1983-1985 | 1986-1989 | 1990-1994 | 1995-1999 | 2000-2004 | 2005-2011 |
| 10-14 | 0.00 | -0.17 | 0.16 | 0.32 | -0.43 | -0.36 |
| 15-19 | 0.00 | 0.02 | -0.65 | -0.65 | -2.66 | -2.65 |
| 20-24 | 0.00 | -1.36 | -2.21 | -3.16 | -5.16 | -4.00 |
| 25-29 | 0.00 | 0.35 | -0.73 | -1.18 | -3.72 | -1.05 |
| 30-34 | 0.00 | -0.52 | -0.33 | -1.64 | -3.12 | -1.38 |
| 35-39 | 0.00 | 0.57 | 0.19 | -0.57 | -1.64 | -1.20 |
| 40-44 | 0.00 | -0.85 | -0.84 | -1.46 | -2.16 | -1.80 |
| 45-49 | 0.00 | -0.25 | -0.07 | -0.73 | -1.51 | -1.43 |
| 50-54 | 0.00 | 0.12 | -0.32 | -0.32 | -0.97 | -0.83 |
| 55-59 | 0.00 | 0.02 | -0.16 | -0.49 | -0.82 | -1.16 |
| 60-64 | 0.00 | 0.49 | 0.70 | 0.33 | -0.16 | -0.31 |
| 65-69 | 0.00 | 0.47 | 0.28 | -0.82 | -0.34 | -0.72 |
| 70-74 | 0.00 | -0.09 | -1.09 | 0.42 | 2.02 | -0.04 |
| 75-79 | 0.00 | 0.63 | 1.88 | 3.20 | 7.17 | 4.48 |
| 80+ | 0.00 | 0.56 | 3.19 | 6.74 | 13.51 | 12.45 |
| D | 0.00 | 6.45 | 12.79 | 22.03 | 45.39 | 33.86 |

<표 2>는 여성의 연령별 자살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 PAI절대값의 합(D)의 변화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1990년대까지는 남성에 비해서는 연령구조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가설 3>의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의 D값이 남성의 경우 16.8, 20.66인 것에 비해 여성의 경우는 6.45, 12.79로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우도 199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구조가 급격히 변동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변동은 남성의 경우와 유사하게 노령층의 자살급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0년대 후반의 경우는 D값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대와 30대의 여성 자살이 상승하면서 1980년대 초반의 구조와 상대적으로 유사하게 변했기 때문이다. 비교적 근래 들어 관찰되는 이와 같은 젊은 여성들의 자살 수준의 증가는 자아의 위기와 관련해서 결혼 및 출산 등과 관련된 전통적인 삶의 변화 혹은 실패 경험의 영향력이 여전히 우세한 가운데 여성의 경제 참여를 높게 요구하는 가족과 사회의 압력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남성과 여성의 자살구조의 PAI지수와 D값을 사용한 분석을 통해서 시기에 따라 구조 변동폭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외환위기라는 급작스럽고 광범위한 사회적 충격이 한국의 자살구조에 큰 변화를 주었을 것이라고 가정된 <가설 4>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전반적인 자살률의 증가와 아울러 자살 발생의 연령구조도 변화가 있다는 분석 결과는 연령별로 경제 위기의 충격에 특히 취약했던 집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그와 같은 구조의 빠른 변동이 특히 노년층의 자살비중 증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외환위기라는 사회적 충격에서 이들 연령군이 자살로 이어지는 자아 정체성의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삶의 대다수의 시간을 전통적인 가족제도 속의 역할과 고도성장을 동반한 산업화라는 제도적 환경 속에서 자아를 형성해온 이들 노령층에게 외환위기로 촉발된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생애 전체에 걸친 자아상에 대한 고통스러운 도전적 환경이었을 것이다. 이 가운데서 가족제도의 약화에 아우른 경제적 불안정의 심화 및 노후보장제도의 상대적 미발달 상황은 그와 같은 자아 지지요소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제약함으로써 이들 연령군이 자아에 대한 위협을 경험하는 강도를 증폭시켜 높은 수준의 자살을 유발하는 과정을 촉진시켰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지난 약 30년간의 한국 자살 발생 양상을 인구학적 구조 변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구조변동을 연구의 전반부에 제시한 네 가지 연구 가설과 이어서 논의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변동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통해 자살의 인구학적 구조를 해명하고자 한 Girard(1993)의 이론적 설명이 한국사회 자살 발생의 인구학적 구조의 변동에 대해 설명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과 자살과의 관련성에 대해 한국사회가 경험한 외환위기의 충격과 관련된 가설도 제시하였으며, 외환위기 전후의 자살률의 구조변동 속도를 볼 때 추가된 가설도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살률의 연령구조에 대한 PAI지표 분석을 통해 지난 약 30년간 한국의 자살발생의 연령구조는 쌍봉구조에서 우상향 구조로 꾸준히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90년대 말 외환위기 시점을 전후로 하여 자살률 구조의 빠른 변화가 있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으로 자살의 인구학적 구조 변동의 속도에서 성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전반적인 자살의 연령 구조변동 가운데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쌍봉구조의 양상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그와 같은 성별 차이가 수렴할지, 혹은 Pampel(1998)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수렴 후 제도적 재조정 과정을 통해서 본래의 차이를 유지할지에 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AI를 중심으로 연령별 자살 발생 구조를 살핀 본 연구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내용은 한 시점의 연령별 자살 발생이 상대적 수준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석기간 동안 자살률은 전 연령에 걸쳐 증가해왔다. 따라서 쌍봉구조에서 우상향 구조로의 변화가 청년층의 자살 위험의 상대적인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위험에 더해 더 큰 위험 요소가 중첩되면서 전체 자살 발생에의 연령별 '기여 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연령별로 전통적으로 존재해왔던 자아의 위기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위험 요소들이 더해지는 중첩 과정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이 상당히 빨랐으며, 경제위기의 갑작스러운 도래와 이후의 사회적 변동 또한 상당히 빨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서 자아 지지요소의 손실에 대한 대체적 지지요소의 확보 수단으로 기능함으로써 사회적 변동에 따른 충격의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저발달은 하나의 상황적인 배경으로 기능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산업화, 가족제도의 변화, 사회적 충격과 같은 거시 외생변수가 정체성의 위기로 이어져 개인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사회적 변화 및 생애변환 사건이 정체성의 위기로 이어지게 만드는 자아의 취약성을 낳는 경우는 그와 같은 충격이 급작스럽거나 대안 모색이 어려운 경우이다. 따라서 제도적 완충장치의 필요성은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일차적으로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예측치 못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다 보편적 차원의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공공사회지출 수준과 자살률간의 관련성에 대해 국가비교를 한 박유진 외(2009)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사회보장수준은 그와 같은 외생적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적 완충장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으로 경제적 지위상승을 최고의 가치로 주입하면서 필연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을 정체성의 위기로 몰아넣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적인 삶의 양식들을 응원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노력들은 단시간에 획득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자살 문제가 지니는 사회적 측면에 대해 보다 많은 시민적 관심과 학술적인 시도들이 꾸준히 모아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자살률의 인구학적 구조의 시기적 변동을 체계적으로 드러내고, 그와 같은 변동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자아개념을 통해 시도하고자 노력하였다. 앞서 비판적으로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자살을 유도하는 사회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보다 확증적인 형태의 실증 분석의 가치를 본 연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역사적 변동과 사회구조 그리고 개인을 잇는 매커니즘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설명모델의 구성과 분석 방법에서 반영되고, 그 결과의 해석에 있어 자아개념과 같은 사회심리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로 채워진다면 더욱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자살 현상에 대한 그와 같은 연구에 도움이 되는 사전적 연구로서 기능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본 연구가 거시적 차원에서 자살 발생의 구조를 규명했다고 해서 우울과 같은 정신병리적 차원의 접근이 지닌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뒤르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Maltzberger(1991)가 제시한 바와 같이 자살의 효과적 예방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서부터 고위험 수준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미시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각 수준에서 아울러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살 발생을 억제하

기 위해서 상당부분의 개입은 미시적 차원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와 같이 거시적 수준에서의 현상 규명을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들이 그와 같은 미시적 실천과 관련한 개입 전략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법래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쳤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한림대학교 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에서 정신보건 관련 통계 D/B 구축과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동아시아 복지정책의 발달과 건강정책 분야이며 지역 비교에 관심이 있다. (E-mail: seeme@hanmail.net)

참고문헌

- 김기원, 김한곤(2011).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한국인구학*, 34(3), pp.31-54.
- 김승용(2004). 한국 노인 자살률 변동과 사회구조적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9(2), pp.181-205.
- 김중섭(2010). 경제위기와 자살 : 한국과 중남미 3개국의 비교. *라틴아메리카연구*, 23(3), pp.45-65.
- 남준우(2007).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 변화의 추이. *노동정책연구*, 7(4), pp.1-24.
- 뒤르켐, 에밀, 황보중우(역)(2008). *자살론*. 파주: 청아출판사.
- 박유진, 김명희, 권순만, 신영전(2009). 공공사회지출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예방의학회지*, 42(2), pp.123-129.
- 박종순, 이준영, 김순덕(2003).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예방의학회지*, 36(1) pp.85-91.
- 송재룡(2008). 한국사회의 자살과 뒤르케임의 자살론: 가족주의 습속과 관련하여. *사회이론*, 34, pp.123-164.
- 신동준(2004). 살인과 자살의 문화적 사회구조적 원인: 머튼의 아노미 이론 검증을 위한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사회학*, 38(4), pp.33-72.
- 신동준(2009). 자살과 우리 사회. *오늘의 문예비평*, pp.256-271.
- 유경원, 노용환(2007).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자살률 결정요인 분석. *한국경제연구*, 18, pp.59-78.
- 유정균(2008). 노인자살률의 지역별 편차: 가족불안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1995-2005. *한국인구학*, 31(2), pp.21-44.
- 윤우석(2011). 실업과 소득격차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검증: 1995년에서 2008년까지의 시계열 자료 분석. *한국공인행정학회보*, 42, pp.153-185.
- 은기수(2005).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의 상관성: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인구학*, 28(2), pp.97-129.
- 이지연, 김소현(2010). 한국의 자살: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 분석, 1983-2003. *한국사회학*, 44(4), pp.63-94.

- 장지연, 신동균(2010). 소득 양극화와 자살. *사회보장연구*, 26(2), pp.1-21.
- 진재현, 고혜연(2013).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인구집단별 자살률 동향과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pp.141-154.
- 최원기 (2004). 청소년 자살의 사회구조적 원인 연구. *사회복지정책*, 18(4), pp.5-30.
-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http://kosis.go.kr/>.
- 藤井良宣. (2010). *カテゴリカルデータ分析*. 東京: 共立出版.
- Cutright, P., Fernquist, R. M. (2001). The Age Structure of Male Suicide Rates: Measurement and Analysis of 20 Developed Countries, 1955-1994. *Social Science Research*, 30(4), pp.627-640.
- Frees, E. W. (2010). *Regression modeling with actuarial and financial application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rard, C. (1993). Age, Gender, and Suicide: A Cross-National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4), pp.553-574.
- Heer, J., Kong, N., Agrawala, M. (2009). *Sizing the horizon: the effects of chart size and layering on the graphical perception of time series visualiz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Boston, MA, USA.
- Hood-Williams, J. (1996). Studying suicide. *Health & Place*, 2(3), pp.167-177.
- Kwon, H., Yi, I. (2009).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in Korea: Governing Multifunctional Institutions. *Development & Change*, 40(4), pp.769-792.
- Maltsberger, J. T. (1991). The prevention of suicide in adults, In A. A. Leenaars(Ed.). *Life Span Perspectives of Suicide*. New York: Springer.
- Pampel, F. C. (1998). National context, social change, and sex differences in suicide r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5), pp.744-758.
- Pawson, R., Tilley, N. (1997). *Realistic Evaluation*, London: Sage.
- Steffensmeier, D. J., Allan, E. A., Harer, M. D., Streifel, C. (1989). Age and the Distribution of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4), pp.803-831.

Threatened Self-concept and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s of Suicide in South Korea: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Roh, Beop-Rae

(Suicide and School Mental Health Institut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s of suicide incidents in South Korea for about 30 years and to explain them theoretically. Social psychological concepts of self-concept and threatened self are introduced as the theoretical basis for explanation. From this theoretical approach four research hypothesis are derived and tested. PAI(percentage age involvement) index and comparison of the structures of Persons residual calculated by poison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for the analysis for suicide incidents data. This study reveals that there has been changes in age-specific suicide incidents structures from bimodal to upward-sloping shapes and gender gap in speed of those changes. And this study found that the financial crisis of the late 90's made great changes in the structures in age-specific suicide incidents in both genders.

Keywords: Suicide, Self-concept, Demographic Structures, Economic Growth, Economic Crisis